

성령 충만이 모든 신심 활동과 교회 생활의 기본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봉사자 워크샵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세크라멘토, 산호세 4개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가 KSC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회)를 초청하여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팀 봉사자를 위한 워크샵을 실시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발렘브로사 피정 센터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워크샵에서는 각 기도회 봉사자들의 철저한 준비와 참여로 각 강의에 필요한 신앙 체험 발표, 조장 교육, 면담 형식의 기도방 훈련등 그동안 절실히 필요했던 봉사자 교육 훈련이 진행되었다. 하느님의 하신일에 초점을 맞춘 봉사자들의 신앙 체험 발표는 워크샵을 더욱 빛내주었다.

KSC 자문위원 이 창재 부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훈련과 강의를 포함하는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참가자들의 호응을 끌어내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 일요일은 KSC 이 줄리아 사무국장의 새로운 찬미 성가로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성령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했다. 봉사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각자의 오순절을 가져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다.

산호세의 이 스테파노 형제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통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던 하느님을 체험하고 세미나에 봉사함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심이 깊어졌다.”며 감사했다. 오클랜드 지 도밍고 형제는 “발바닥 신자였으나 아내와 그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세미나를 받은 후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이 모든 신심 활동과 교회 생활의 기본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북가주 봉사회 박 소피아 회장은 “이번에 실시된 워크샵을 통해 세미나는 우리 자신만의 신심을 높이기 위한 피정이 아니며,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 선포를 할수 있는 도구임을 확실히 깨달았다”며 각 본당에서 세미나가 실시되도록 각 기도회에 협조를 당부하고 각 본당 세미나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10-25-2009 13:22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밴쿠버 공소 성령 기도회 발족

캐나다 밴쿠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임 신부 이태우) 소속 성 유대철 베드로 공소에 성령 기도회가 생겼다. 밴쿠버 본당은 밴쿠버 남쪽 쓰리에 자리잡고 있고, 밴쿠버에는 유대철 공소가 소재해 있다. 밴쿠버 공소 기도회는 지난 8월 말 열린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9월 18일에 형성됐다. 회장은 손영준 프란체스코씨, 1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2008년 11월 백대수 세례자 요한 형제 내외의 주도로 기도회의 필요성과 본당과의 거리상 동참하기 불편한 점등을 해소키 위해 신자분들의 의견과 서명을 받아 이태우 요셉 신부님께 요청했고, 재가를 기다리던중, 지난 8월 제 1차 성령 안의 성장 세미나를 계기로 적극 요청한 바, 신부님께서 지역 몬시놀과 협의한 끝에 공소 기도회를 매주 금요일에 가질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월 9일 본당 신부의 주례로 창립 미사를 받쳤다. 기도회장 손영준 프란체스코 형제는 “모든것이 생소하고 닥치는 일들이 쉽지만은 않아도사랑과 자비에 의탁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굳게 믿으니, 더 이상 두려움과 시련은 주님께 다가서는 과정일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가 될수없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축하합니다.

10년만의 천국 잔치 샬롯 본당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샬롯 성 이윤일 한인 천주교회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지난 2009년 11월 12일(목)부터 15일(주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태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과 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된 성령 안의 삶 세미나는 본당 교우 70여명과 공소인 그린스보로 교우 10여명 함께하여 전체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님 안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샬롯 한인 천주교회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당 성령 안의 삶 세미나는 10년 만에 개최되는 본당 세미나로 그동안 알게 모르게 흩어졌던 마음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 사랑 안에 하나로 어우러지는 은혜로운 잔치였다.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세미나에 대한 소개와 체험담이 8일 주일 미사 후에 있었고, 이후 12일(목) 개회미사를 시작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조별 나눔으로 첫날을 시작한 세미나는 둘째 날, 새 생명과 하느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이어져 셋째 날인 토요일 고해성사와 면담 준비를 마치고, 성령 안수를 받으면서 함께 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 기쁨의 도가니가 되어 하느님을 찬미 하였다. 15일 주일 미사 후에 이어진 성령기도회는 오랜만에 누리는 기쁨의 잔치로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춤과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로 봉헌하며 주님 안에 성장과 그리스도로의 변화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런 기쁨을 얼마 만에 느끼

는 줄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하며 김미카엘 형제와 미카엘라 자매는 눈물을 주체치 못했고, 박 에스터 자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손잡고, 시누이와 올케가 서로 어우러져 춤추는 모습이 천국 잔치 같아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김 스테파노 형제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더 자주 개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사자들에게 간청하며 감사해 했다.

기사 제공: 안희숙 엘리자벳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할까?” 진리에 맞선 탄압에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권 종상 요셉, 타코마 본당

두번째로 참석한 성령 세미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욱 특별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음악 봉사자가 되어 멀리 알래스카, 토론토에서 오신 봉사자분들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이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만큼 노래를 하면 목이 쉬었을텐데,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도 제 목은 괜찮았습니다. 세상의 노래를 술김에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 바로 하느님을 향한 찬미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처음 성령세미나에서 받은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이 세미나에 참가했고, 그러면서 음악 봉사자로 활동하게도 되었지만, 제가 이번 성령 세미나 기간동안 붙잡고 있었던 화두는 한가지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은총을 구해야 할 것인가. 저는 계속 생각했고, 분별의 은사를 감히 청했습니다.

아직 제가 청했던 은사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시는 세상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의 구현을 위해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세미나 내내 그것을 생각했고, 이 세상이 성령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엔 금력과 세상의 잘못된 권력이 판치고 있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헛된 것으로 칠해진 모습을 하고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들을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게 소리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느님께 청했습니다. 처음 성령이 불의 혀 모습으로 내려 다락방에 모인 12명에게 용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이 내렸을 때, 아마 그것은 지금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진리에 대한 탄압'에 맞서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 세미나는 '집단의 성령체험'일 것이며, 개인의 체험은 그것이 사회를 변혁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될 어떤 계기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 떨림으로 성령을 맞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첫 성령세미나의 감동과는 다른 것이었을지라도, 성령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당신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에 열의 모습으로, 떨림으로 대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고,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고,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당신이 주시는 깨끗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세미나가 끝나고 마지막에 갖게 된 평가회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의지로 모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힘으로 할 일이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열렸던 타코마 성령안의 삶 세미나 참가 후기입니다. 편집자 주



작은 나눔 큰 기쁨

여러분을 KSC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기다립니다.

2009 – 2010 Seminar Schedule

일자	행사	주최	문의
12/4 - 6	Young Leaders LSS Workshop	달라스 본당	민 라파엘 214-952-8956
12/6 - 8	성모 신심 세미나 봉사자 워크샵	달라스 본당 기도회	민 라파엘 214-952-8956
1/11 - 13	National Leaders Gathering	NSC	이 줄리아 253-223-8775
1/15 - 17	청년 교육 세미나	KSC-Y	안 프랜시스 919-225-3669
1/21 - 24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헤밀톤 본당	이 재희 905-901-4876
1/24 - 26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봉사자 교육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이영숙 404-429-7659
2/8 - 12	과달루페 성지 순례	KSC	이 줄리아 253-223-8775
2/28 - 3/3	제 9차 성장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4/18 - 4/21	동북부 봉사자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5/16 - 5/19	제 52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5/28 - 31	동남부 청년들을 위한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아틀란타 본당	이 영숙 404-429-7659
5/28 - 31	동북부 제 17차 청년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7/17 - 18	동북부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7/25 - 28	동남부 지역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이 영숙 404-429-7659
7/31	동북부 청년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10/28 - 31	제 53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데레사 201-947-4717
10/30 - 31	동남부 지역 성령 대회	동남부 봉사회	이 영숙 404-429-7659

KSC 2010 과달루페 성지 순례 복음 선교 회원 모집

일정: 2010년 2월 8일(월) - 12일(금) 4박 5일 **집합 시간:** 2월 8일(월) 4:30pm, Mexico City 국제공항
회비: \$500 (숙식과 교통비 포함) **출발 시간:** 2월 12일(금) 2:00pm 이후, Mexico city 국제공항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이며, 각자 구입.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253-663-4407, 우편 KSC 커뮤니케이션 센터, 130 67th Ave E, Fife, WA 98424
 문의는 이 은경 줄리아 253-223-8775

성명(한글, 영어)		영세명(한글, 영어)	
전화, e-mail			성별: 남() 여()
주소			
소속 본당		여권 번호	
항공편, 도착 일시		항공편, 출발 일시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